

충남 사회적 경제와 지역에 온기를 전하는 “따숨” 마켓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효 성

10월을 시작으로 어느덧, 4번째 열린 따숨마켓 현장에는 사회적기업 뿐 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14일 마켓이 열린 독립기념관에는 늦가을의 단풍 구경을 하는 인파로 인해, 평소보다 한층 더 북적이고 있었다.

따숨마켓은 지역민들에게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비롯한 광역중간지원조직이 독립기념관과의 협업을 통해 작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



독립기념관 광장 내 따숨마켓

현장 부스에서 첫 번째로 만난 ‘소나기커뮤니케이션’은 영상콘텐츠 제작 및

교육, 그리고 메이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만든 사회적기업이다. 아산시 도고면에 위치한 폐교를 개조하여, BCPF 콘텐츠 학교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설립했다.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교육, 아이에게는 코딩 교육과 콘텐츠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며 디지털 소외계층 및 낙후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귀농인을 위한 목공교육과 석고 방향제 등 지역 공방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내 생기를 불어 넣는 시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소나기커뮤니케이션 현장 부스

또한, 천안아산역 쪽의 본사에서 성 소수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약자 계층을 위한 영상 제작을 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WANT’는 베트남에서 온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한 예능프로그램으로, 실제로 베트남으로 수출되었다고 한다.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의 예비사회적기업인 ‘정성온밥상’은 밑반찬 및 도시락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소득층 가정과 노인을 후원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요리할 수 있도록 기본 밑반찬, 국 등을 배우는 요리 수업을 제공한다. 기업 담당자는 사회복지관에서 요리 강의를 재능 기부활동을 시작으로 충남 자활기업협회 공모사업

의 일환인 ‘토탈케어서비스’에서 밑반찬 사업을 맡게되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바다엔플러스 협동조합은 서천 지역 내 어민들과 동네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건어물 및 새우젓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선별 및 포장 과정에서 지역 내 유휴인력을 활용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여 어촌 내 일자리 제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사업담당자는 어르신이 이전보다 공동체의 즐거움을 느끼고, 소일거리를 통한 급여를 받게 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만족감이 큰 편이라고 전했다. 관리 측면에서도 유통 및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의 효율성이 높아져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에게 지속적인 일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전했다.



바다엔플러스협동조합 현장부스

천안지역자활센터에 속한 ‘건조식품사업단’은 천안 쌀을 이용하여 100% 쌀 과자를 제조, 판매한다. 천안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미취업자인 20대부터 일자리를 잃은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총 11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현장 부스 담당자분 역시 이전 직장에서의 부상으로 인해, 일을 쉬다가 재활 과정을 거쳐서 건조식품사업단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참들고추마을방앗간’ 역시 당진자활센터 내에 속해 있는 협동조합으로 저소득 계층에게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당진시의 해나루 쌀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이용해서 빵, 과자, 누룽지 등 가공식품과 참기름 등을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창업에 대한 지원과 다른 곳으로의 취업을 위한 연계를 돕는 활동을 통해서 생산기술 및 서비스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따숨마켓은 충남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판매 부스로만 구성되어, 지난 세틀마켓이 주최한 마켓과는 또 다른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판매 부스 외에도 업사이클링 제품을 활용한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폐지를 이용한 딱지치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그리고 폐종이박스를 활용한 젠가 등으로 방문객들의 즐거운 모습을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예비환경사회적기업인 코끼리별꽃이 도민 대상 사회적경제교육의 일환으로 준비한 ‘게임으로 알아가는 사회적 경제’ 체험부스는 퀴즈를 풀면 주어지는 응모권을 통한 선물 추첨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의 사회적경제 및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따숨마켓 내 환경 관련 체험부스

충남도민들에게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생소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취지에서 ‘따숨마켓’은 지역 내 안정적 유동 인구와 공간이 확보되는 천안 독립기념관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여러 콘텐츠를 통해 매 회차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숨마켓’이 지역내 하나의 로컬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회적경제 및 기업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기와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을 따뜻하게, 자연에 숨을 불어넣는 따숨마켓’ 행사가 내년에도 성황을 이루어 윤리적 소비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많은 힘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

* 문의 :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041-417-1107: 마을기업),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041-417-0014: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